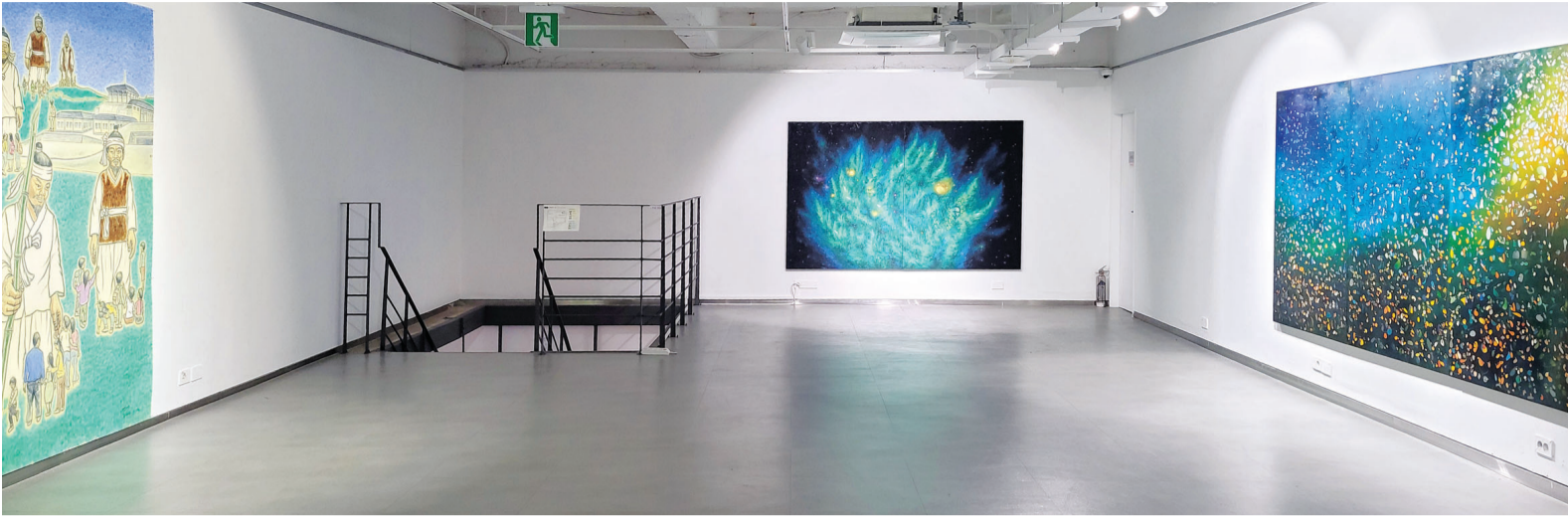


농민군들이 꿈꿨던 대동세상, 민중의 염원 담아...



동학동민혁명 130주년 기념전 '비원: 긴 여정의 시작'이 오는 3월 14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열린다.

"제가 동학농민혁명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로 젊은 시절을 바쳤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바로 1980년의 광주사건과 그 후의 아학운동이었습니다."

40년 동학연구의 길을 걸어온 역사학자 박광수 원광대 명예교수는 지난 2014년 펴낸 '동학농민전쟁과 일본-또 하나의 청일전쟁' (모시는 사람들)에 실린 '동학농민혁명과 현대한국-내가 걸었던 도정에서'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박 교수는 동학농민혁명이 80년 5·18민주화운동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동학농민군 희생자를 기리는 사죄비' 제막식이 나주에서 있었는데 그는 사죄비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아 4년간 헌신하기도 했다.

박 교수 외에도 동학은 양심 있는 지식인과 시민들, 학자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화두이자 지향해야 할 가치다. 5·18은 물론 3·1운동, 4·19혁명, 6·10민주항쟁의 뿌리가 모두 동학농민혁명에 닿아 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30주년이 되는 해다. 갑오년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반외세, 반봉건을 외쳤던 자주적 성격의 민중저항운동이었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있는 전시가 열려 화제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중기)이 마련한 '비원(悲願): 긴 여정의 시작'이 그것. 3월 14일까지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는 민중미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 17명 작가 작품이 출품됐다. (오픈식은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고부민관이 일어난 것이 2월 15일이었던 데서 착안해 전시 시작을 15일로 정한 것이 눈길을 끈다.

채중기 관장은 "올해 전국에서 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관련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인데 가장 먼저 저희 미술관에서 그 의미를 짚어보는 전시를 개최하게 됐다"며 "주제가 말해주듯 당시 농민군들이 꿈꿨던 대동세상, 민중들의 염원이 작품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비원(悲願): 긴 여정의 시작' 전 15일~3월 14일 은암미술관

곳곳에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고 말했다.

전시를 기획한 정여섭의 학예사는 "130년 동안의 지난한 여정의 의미를 돌아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판화부터 회화,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시는 크게 두 섹션으로 진행된다.

'혁명의 소용돌이'에서는 동학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중의 의로움을 만난다. 40여년간 묵판화에 매진해 온 김준권 작가의 '새야 새야'는 동학의 지도자 전봉준이 민중들을 일깨우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동학연작을 발표하는 등 사회변혁운동에 힘써 왔던 이철수 작가의 '동학연작-기민행렬 2'도 볼 수 있다. 1894년 외세의 침략과 권력층의 무능함과 부패가 결국 나라의 운명을 절곡에 빠뜨린 것을 초점화했다.

'민중미술의 거장'이라고 일컫는 신학철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거친 나뭇결에 민중의 염원을 거친 선으로 새긴 묵판화 '유월 항쟁도'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이 투영돼 있다.

사회의 현실을 비판적 리얼리즘 미학으로 실천하며 목소리를 내는 홍성담 작가의 '시천주조화정(待天主造化定)'도 관객을 맞는다. 동학의 정신을 절개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작이다.

민중화가 홍성민 작가의 '대나무와 새'는 왕조로 대변되는 봉건과 물신으로 표상화 된 지배를 삽입해 발길을 붙든다. 김우성 작가의 '눈보라'는 광주 우금치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의 모습을 담고 있어 먹먹하게 한다.

'역사를 마주한, 현시대에 던지는 질문들' 섹션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응하는 현실주의의 방식을 고민하는 포스트 민중미술도 함께 선보인다.



김준권 작 '새야 새야'

울산민중미술 1세대로 알려진 박경열 작가는 환경, 노동 분야의 작품을 3D로 제작했으며 서지연 작가는 'Anima Mundi 2024 shaman king 이소사'에서 민중의 한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영상과 함께 선보인다.

전상보 작가는 '만남'을 매개로 1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과거, 현재, 미래의 만남을 묘사한다. 동학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윤은숙 작가는 동학농민혁명이 남긴 유산을 고민하며 그 정신을 생명의 영원성과 연결해 형상화했다.

/글: 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6월 진행한 상설공연 '한국가곡 음악회' 공연 장면.

<광주시립합창단 제공>

합창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봄은'

광주시립합창단 토요일상설공연, 24일 광주공연마루

어느덧 봄을 지나 공연가에서도 '봄'을 소재로 한 무대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주말에는 시린 겨울내 웅크렸던 몸을 지치게 켜고 공연장을 찾아, 봄을 노래하는 합창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광주시립합창단이 토요일상설공연 '우리의 봄은'을 오는 24일 광주공연마루에서 펼친다. 독창부터 합창, 혼성 합창 등 다양한 구성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공연의 막은 우성식 테너가 가곡 '남촌'으로 연다. 이어지는 '꽃잎'은 바리톤 손승범이 들려준다.

유럽의 가곡들도 울려 퍼진다. 이탈리아 가곡 '아침의 노래'는 메조소프라노 지영남, '나를 잊지 말아요'는 오지영의 목소리에 담긴다. 독일 가곡 '세레나데'는 소프라노 표현진이 부르며 소프라노 정혜진의 '봄의 소리 왈츠'도 레퍼토리에 있다.

2중창의 하모니도 만끽할 수 있다. 소프라노 황미화, 바리톤 윤찬성이 함께 정희선 곡 '어느 봄날'을 부를 예정이다. 또 김일권이 편곡한 '신고산 타령'은 테너와 베이스 등 남성들이 합창하며 '바

람은 남풍', '제비꽃' 등은 소프라노 알토 등 여성 합창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합창단 전 단원이 출동하는 혼성 합창도 이어진다. 윤학준의 '나 하나 꽃 피어'를 비롯해 '정산에 살리라', '봄이 오면' 등 완연한 봄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관객들을 만난다. 지휘 및 진행에 광주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이준.

박승희 홍보담당은 "2024년 새해와 함께 찾아오는 봄을 맞이하고자 우리 가곡을 비롯한 봄노래들로 공연을 준비했다"며 "올해에는 더 다양하고 어울림 넘치는 합창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합창단은 1976년 장신덕 교수의 시민합창단으로 태동, 창단 48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석복동, 김연술, 유병무 등 합창계의 선구자적 지휘자와 함께 190여 회가 넘는 정기연주회를 선보여 왔다.

무료 진행. 올해부터 공연마루 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로 변경.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부드럽고 온화한 비올라 음색

엄광용 비올리스트 독주회, 3월 19일 금호아트홀

바이올린의 화려함, 첼로의 중후함은 달하지만 두 악기의 중간 음역대에서 '든든한 조역자' 역할을 맡는 비올라는 오케스트라 구성에 필수적이다.

비올라의 음색을 감상하는 연주회가 펼쳐진다. 광주 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인 엄광용 비올리스트가 3월 19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슈만의 '마치발레트 Op.113'으로 막을 연다. '이야기 그림책'으로도 불리는 작품은 비올라를 통해 4악장의 단편 동화 네 편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제오르제 에네스쿠 곡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티스튀크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비가 Op.30'은 벨기에의 바이올린 명수 비외탕의 곡이다. 요크 보웬이 작곡한 '비올라 소나타 1번 C단조 Op.18'도 레퍼토리에 있다.

한예종을 거쳐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를 수석 입학·졸업한 엄 씨는 같은 대학 최고연주자과정도 졸업했다. 제60회 프라하의 봄 국제 콩쿠르에서 파르텐 2위에 올랐으며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양



엄광용 비올리스트

상블 라 감모 단원, 광주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등으로 활동했다.

현연자 피아니스트 김연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쳤다. 광주시립교향악단에서 수차례 협연했으며 현재 광신

대 음악학과 조교수로 있다.

공연을 기획한 라온공연예술기획은 "광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비올리스트의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포근한 음색의 비올라가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2만 원 (학생 50% 할인).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음악협회 신임 회장에 이경은씨 당선

(사)한국음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이하 광주음악협)는 17일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이경은 씨(사진)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현재 충남대 외래교수, 광주 오페라단 운영위원, 광주성악가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광주여성단체 이사, 광주전남 예술인협회 총감독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회장은 주요 공약으로 기업-예술가 매칭 지원사업 활성화를 비롯해 정기·상설무대 추진, 합창단 신설 운영 및 청년예술인 지원, 메

트로 뮤직페스티벌&5대 광역도시 음악협회 교류 등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음악 협회"를 모토로 청년예술가부터 원로 음악인까지 예술가들을 아우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며 "문화예술사 운동을 통해 예술가와 기업의 매칭을 이끌고, 지역 예술의 자생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2027년 1월까지 3년 간.

한편 광주음악협은 민족음악의 발전을 도모하



이 가입돼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고 지역간 음악교류와 국제적인 음악문화 활성화를 통해 음악가의 지위향상,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1987년 만들어 졌다. 현재 120여 개의 국내·외 지회 및 지부와 100여 개 산하단체를 두고 6만여 명의 회원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